



제2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가 지난 19일 오후 2시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지연씨가 조용필의 '상처'를 부르고 있는 모습.

노래로 삶의 즐거움·자신감 'UP'

제2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가 지난 19일 오후 2시 풍남문화광장에서 김양욱 대회 본부장, 양현섭 제전위원장, 강정원 사무처장, 최라도 전 국회의원, 김종득 (사)새시대한국노인회 전주시회장, 이남숙 전주시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와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사)새시대한국노인회 전북총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노인의 날 기념과 실버세대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버세대의 즐거움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중요성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고자 열었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62명이 참가하고 예선을 통해 선발된 본선 참가자 13명이 열린 무대매너를 선보였다.

행사에서 이지연(경남 함양, 62)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수암(전주)씨와 김동화(전주)씨가 최우수상을 김희정(전주)씨와 소민건(전주)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열린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양현섭 꿈드레장애인협회장과 가수 이수정씨 등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양욱 대회 본부장과 양현섭 제전위원장, 최라도 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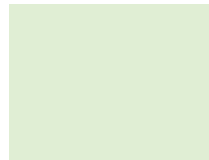


대회 참가자 전병길씨가 열창을 하고 있는 모습.



심사를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

초대 가수 김영애씨의 열창.



대회와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는 양현섭 제전위원장.



공로 표창장을 수여받은 가수 이수정씨(왼쪽)와 김양욱 대회 본부장.

축! 전주매일 창간

전북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백두대간 서쪽의 가야고분군 중 단일유적으로는 최대 규모인 동촌리 가야고분군이 국가사적 제55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촌리 가야고분군은 그동안 백제권으로 인식됐던 장수지역에 가야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유적으로써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와 교류사를 통해 가야사에서 장수군의 위상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미래의 땅,
힘찬 장수

